

사설

취업문제, 벤처로 극복하자

바야흐로 취업시즌이다.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연쇄부도의 여파로 인해 예비졸업생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전방이 지배적인 가운데 얼마전 발표한 정보통신부의 '대학생 창업'에 관한 지원 소식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벤처기업의 형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관련 학과의 첨단 기술개발 등 대학의 연구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벤처기업의 증가를 통한 첨단분야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적용의 폭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학연계의 한 모델을 창출한 것은 앞으로 이와같은 형식의 활동들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마저도 가능케 한다.

각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 제기되는 학문연구라는 대학본연의 기능을 강조하는 의견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졸업이후 동문들의 취직율이 신통명문을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로서 작용하는 현시기에 대학본연의 기능을 강조하는 문제제기는 일종의 강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만큼 현시각 각 대학 사이의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와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하는 것이 대학을 평가하는 가치척도로서 여겨지고 있는 시대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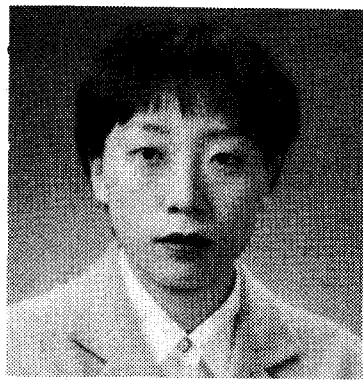
위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취업의 길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대학4년동안의 학업을 수행한 일부학생의 경우는 좀더 용이하게 취업관문을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취업이라는 관문은 일시보다도 더욱 어려운 관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은 취업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창출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약30%의 학생이 졸업후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소사장의 모습 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시론

선거철에 나타난 언론의 여당편들기

미디어선거, 불공정보도 경쟁인가



김 유 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이들을 쫓는 언론도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본격적인 '미디어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느 때보다 언론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커지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따른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방송의 선거보도가 드러낸 문제점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선거철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는 그 불공정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직·간접적인 여당편향, 선거때

표면에서 사라졌을 때 여전히 뿌리깊은 불공정보도 관행이 엿보인다는 것이 대선제도 모니터에 나선 시청자단체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마다 등장하는 안보위기관, 홍미귀주의 판세보도,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양비론 등 그 병폐가 누누이 지적됐다.

물론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노골적인 불공정보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면에서 사라졌을 뿐 여전히 뿌리깊은 불공정보도 관행이 엿보인다는 것이 대선제도 모니터에 나선 시청자단체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뿐만 아니라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불공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7월 신한국당 경선과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문제, 오익제씨 월북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난 바 있다. 여당의 경선이 갖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 대통령선거라도 되는 듯 과열보도한 것에 대해 정당간 형평성을 지키는 선거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또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회피 의혹은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진상규명 노력에 소홀한 채 정치적 전반의 '이전투구'로 몰아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KBS의 편파보도

오익제씨 방북에 대한 보도에서는 오씨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직간접적으로 연결, 고질적인 사상시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책대결'을 강조하는 방송사들의 주장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패권' '가신그림' '지역정서' '총공세' '승부처' 등의 선거거보도 용어에서 드러나듯 후보자간의 정치적 계산과 경쟁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보도태도 역시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일각에서는 KBS뉴스가 일방적인 여당 편들기로 가장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실제로 KBS는 MBC와 SBS에 비해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한국당 주류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당내 갈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신한국당 연석회의가 열렸던 지난 8월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4시간 가까운 격론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대표 중심 단합'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이인제씨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도 주류측 입장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누가 더 불공정한가

또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정기국회를 단선처리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평통회의자문위원 격려, 경제5단체장 오찬 등 타 방송사에서 단선으로 짧게 보도한 동정기사를 비중있게 다뤄 빈축을 샀다. 야당의 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선심성공약의 우려가 제기되는

정책을 부각한다거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를 남발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보도의 사례가 비단 KBS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MBC와 SBS 뉴스도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역시 신한국당 주류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하고 내분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 야당관련 보도에서 아직도 불균등한 시간배분과 불공정한 화면처리 및 그래픽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어긋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이 소외되기 일췌다. 군소후보들은 뉴스에 얼굴을 내비칠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송사들은 '누가 더 불공정한가'를 겨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불공정보도를 비단 KBS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불공정보도 관행이 시청자들의 감시와 비판만으로 근절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권언유착'이라는 언론현실에서 비롯된 불공정보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 등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과거 노골적인 왜곡 편파 보도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수송자들의 감시활동은 이제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PC 통신원

MBC의 왜곡된 정조관념

성폭행 보도 중 잘못된 멘트로 사람들 분개

지난 11일 MBC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투신자살을 한 어느 여대생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다. 경남 김해동 모아파트에 사는 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택시운전기사를 꼭 잡아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14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후 MBC는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최영태기자의 마지막 멘트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당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클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크게 분개하게 만든 것이다.

PC통신 하이텔에선 13일 토론방이 개설되어 MBC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다. 뉴스 마지막에선 성폭력의 심각성이나 성범죄 수사, 처벌절차의 문제, 왜곡

된 성가치관의 폐해가 언급되었어야 하는데, 성폭행을 당하면 죽음을 한 어느 여대생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다. 경남 김해동 모아파트에 사는 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택시운전기사를 꼭 잡아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14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후 MBC는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최영태기자의 마지막 멘트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당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클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크게 분개하게 만든 것이다. PC통신 하이텔에선 13일 토론방이 개설되어 MBC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다. 뉴스 마지막에선 성폭력의 심각성이나 성범죄 수사, 처벌절차의 문제, 왜곡

세·시·봉

찬호사랑 나라사랑(?)

전국민의 애간장을 달구는 사나이가 있다. 그가 한번 잘든지면 맥주가 잘 팔리고 그가 한번 못든지면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한다.

코리아 특급, 국민적 영웅 박찬호를 부정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올해 스포츠계의 청년 박찬호는 이제 국민의 희망이 되어 버렸다. 그가 한 게임 한게임 승리 이어 갈때마다 거리는 그의 이름으로 넘실거리며, 신문과 방송은 그가 피곤한 기색만 보여도 컨디션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난다.

PC통신에서도 그 인기는 지칠줄 모른다. "찬호오빠가 지면 울겠어요"라고 말하는 9살짜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하다. 박찬호"를 외치는 장년의 성인들까지. 그의 팬들은 연령과 계층을 초월한다. 하다못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까지 같은 고향임을 내세워 자신의 친필휘호를 박찬호에게 전달했다고 하니 그 열기에 질릴 정도다.

도대체 이 열기의 원인은 어디일까?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열광



최수정 편집장

찬호사랑 나라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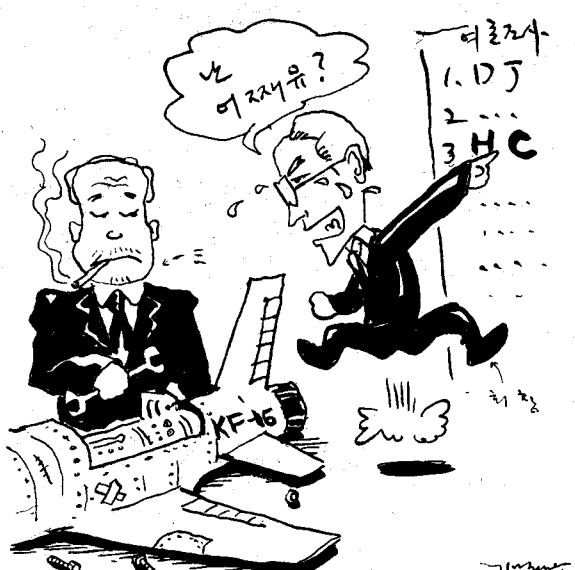
하게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다른 누구보다 강한 미국 동포들의 찬호사랑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평균적으로 다저스 게임시 3만 8천석의 표가 팔리는데 박찬호가 등판 할 때면 4만 2천석의 표가 팔릴 정도로 동포들은 박찬호를 아낀다. 공부하러 미국에 왔다는 재미교포는 한 일간지에서 "공부하고 돈 밖에 모르는 코리아인이라는 열기를 들기 싫어 학창시절 운동이 라면 가리지 않고 했는데 박찬호가 미국내의 한국인상을 바꿔놓았다"

고 좋아했다.

그렇다. 작은키에 왜소한 체구를 가진 유색인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광활했을 아메리카. 그 한가운데 박찬호는 엉덩하게 서있는 것이다. 덩치크고 힘세 보였던 미국인들 앞에서 날쌔고 힘찬 공을 던지는 그의 모습은 한국인이란 누구나 감탄할 만큼 멋지다. 국내의 찬호열기 이면에도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어라한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박찬호가 있으니 다저스도 내친구"라는 문구를 보니 이전 좀 심하다 싶었다. 아무리 다저스의 승리여부에 따라 박찬호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 프로야구까지 응원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파란만장한 일상, 우울한 뉴스로 점철된 요즘, 박찬호의 선전은 가문의 단비와 같다. 그러나 그 단비로 가뭄을 해갈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 열풍을 조금씩 잠재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은근하지만 꾸준한 관심이 박찬호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경의만평

김진우



"난 다해먹었는데 뭐..."

One & Only

The future together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학 신기술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 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코오롱